

	독일 (프랑크푸르트) 사무소 해 외 동 향 보 고 서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정훈희 소장
		일 시	2024. 8.

CEPA Insight

- 탄소중립 산업법, 경제회복 성장패키지 등 독일 정책 이슈에 부합하는 업종에 대한 집중 진출 지원 및 탈중국에 대응한 5G 시장 공략 필요

① EU 탄소중립 산업법(Net-Zero Industry Act) 발효

- EU 탄소중립 산업법(NZIA)가 6. 29.(토) 발효되어 독일 전국에서 적용
 - 하벡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"동 법은 독일과 유럽의 탄소중립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, 관료주의 축소와 더 많은 투자를 위한 법"이라며
 - 이를 통해 "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 안보에 기여"할 것이라고 언급
- 5. 27.(토) 유럽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된 EU 탄소중립 산업법은
 - '30년까지 태양광, 배터리, 탄소포집·저장·활용(CCUS) 등의 EU 수요를 최소 40%까지 역내 제조 능력으로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
 - 청정기술산업의 필수 원자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핵심원자재법, 전력시장 개편과 함께 EU그린딜 산업계획을 위한 핵심적인 법

※ 출처 : BMWK (https://www.bmwk.de/Redaktion/DE/Pressemitteilungen/2024_06/20240629-net-zero-industry-act-tritt-in-kraft.html)

② 2024년 2분기 독일의 경제 성장 -0.1% 기록

- 독일 연방통계청은 7. 30.(화), 2024년 2분기 독일 국내총생산이 전 분기 대비 0.1%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
 - 전문가들은 독일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0.3%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
 - 대표적 경기선행지표인 ifo 기업환경지수도 5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하여 7월에는 전월 대비 1.6p 하락하여 87.0을 기록
- 한편,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최근 독일 경제의 위축에도 불구하고, 최근 연정이 합의한 성장패키지의 신속한 이행이 담보된다면 '25년 경제성장률 0.5%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 고수

※ 출처 : Handelsblatt (<https://www.handelsblatt.com/politik/konjunktur/bip-deutsche-wirtschaft-schrumpft-im-zweiten-quartal-um-01-prozent/100056168.html>)

③ 독일 정부, 경제회복을 위한 성장패키지 동의

- 정부 내각이 독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의(7.17.)한 고용·감세·투자 등 49개 개별 조치를 담은 성장패키지의 주요내용은
 - (고용 인센티브) 연금·실업보험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을 직원에게 임금으로 직접 지급(+250유로/월), 초과근무에 대한 감세 등
 - (외국인 숙련공 인센티브) 외국인 숙련공 최초 3년간 세금 감면
 - (세금감면·사회보장 강화) '25/'26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소득세율 조정, '24/'25년 아동수당과 기본수당 인상
 - (관료주의 감소) 데이터 보호는 간소화, 수출기업 절차 단순화
 - (기업 투자) 개발 지원금 지급, 상업용 전기차 특별 감가상각 적용 등
- 정부연정(사민당·녹색당·자민당)은 이번 조치로 인해 내년 약 0.5%의 추가 경제 성장을 확신하고 있으나 경제학자들의 반응은 회의적

※ 출처 : Tagesschau (<https://www.tagesschau.de/wirtschaft/konjunktur/wachstumspaket-bundesregierung-100.html>)

④ '24년 상반기 독일 자동차 시장 5.4% 성장

- '24. 6월 자동차 신규 등록은 1,471,641대 기록(연방자동차청, KBA)
 - 그 중 61.2%가 독일 브랜드 또는 독일 제조업체 소유에 해당
 - 1위 VW(19.7%)에 이어 Mercedes (8.6%), BMW (7.8%), Audi (7.1%) 순
 - '24년 상반기 VW는 11% 증가를 기록한 반면, Audi 및 Mercedes는 전년 대비 각각 -17.1, -12.7 판매율 감소를 기록
- 반면, 독일시장에서 Tesla는 판매 급감 : 전년대비 -41.6%
 - '24년 상반기 순위에서 Tesla는 상위 30개 브랜드 중 최대 하락폭 기록
 - 구매 보너스 종료, 전기차 수요 감소, 경쟁 심화 등으로 원인 분석
- 한국차의 경우, 현대는 시장점유율 3.4%로 9위, 기아는 1.8%로 13위 기록했으며 점유율 및 판매수치에서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 유지

※ 출처 : Automobilwoche (<https://www.automobilwoche.de/automarktdaten/automarkt-sieger-und-verlierer-nach-sechs-monaten>)

⑤ 세계 해상운송 정체 증가로 물류비 인상 :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

- 현재 세계 컨테이너 12개 중 1개가 정체 중인 상황으로
특히, 중국 → 유럽 노선에서 컨테이너당 운임 상승
 - 이는 기업의 중간제품 및 소비재 가격상승으로 이어져, 정체 현상 장기화 시 유로존 소비자 물가(에너지·식품·음료 제외) 약 0.25%p 상승 예상
 - 현재 글로벌 물류비 인상의 원인은
 - (홍해리스크 장기화) 남아프리카 희망봉 우회로 시간·경비 부담
 - (기후변화) 중국 항구 안개, 동남아 폭우, 파나마 가뭄 등
 - (중국 수출) 중국 수출 재증가로 많은 항구에서 병목 현상 발생
- ※ 출처 : Tagesschau (<https://www.tagesschau.de/wirtschaft/konjunktur/inflation-frac-htschiffe-china-frachtraten-container-panama-stau-huthi-ozean-100.htm>)

⑥ 독일, 5G 통신망에서 화웨이 부품 대부분 제거 예정

- 연방정부와 도이체텔레콤, 보다폰 등 독일 주요 이동통신사업자들은 '26년까지 데이터가 집중되는 핵심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, ZTE(중싱통신) 등 중국 제조업체의 부품을 제거하고, 나머지 접속, 전송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'29년까지는 제거하기로 합의
 - 해당 합의는 화웨이 및 ZTE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
 - '22년 기준 독일 5G 네트워크에서 중국 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60%
- ※ 출처 : Tagesschau (<https://www.tagesschau.de/investigativ/ndr-wdr/fuenfg-betreiber-bundesregierung-100.html>)

⑦ 독일 지방정부, 설탕 함유 청량음료에 세금부과 요구

- 9개 연방주는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대한 세금부과를 연방정부에 요구
 - * 브란덴부르크·브레멘·함부르크·메클렌부르크-서포메라니아·니더작센·라인란트팔츠·작센·튀링겐·자를란트
 - 연방식품부장관 Özdemir(녹색당)는 오랫동안 이른바 설탕세 신설에 찬성해왔으나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은 이를 반대 중
 - 세계보건기구(WHO)도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대한 특별세를 권장하며, 최소한 20%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
 - 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설탕세를 부과 중에 있음
- ※ 출처 : Tagesschau (<https://www.tagesschau.de/inland/innenpolitik/softdrinks-steuer-zucker-100.htm>)